

保健教育·保健增進學會誌 第16卷 1號(1999. 2)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16. No.1(1999)

루소의 건강관에 대한 현대적 고찰

- 「Emil」을 중심으로 -

반 덕 진

우석대학교 인문학부

〈목 차〉

I. 문제 제기	IV. 결 론
II. 루소의 지적 편력과 「에밀」	참고문헌
III. 루소의 건강관과 현대적 의의	영문초록

I. 문제 제기

건강을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현대의 학문분류 체계에 적용시켜보면 신체적 건강은 자연과학, 사회적 건강은 사회과학, 정신적 건강은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에 관한 학문, 즉 건강학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의 총체로서 곧 「인간학」이 된다. 실제로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학부 전공이 매우 다양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사실 보건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보건학은 지

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다학문적 접근 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학은 보건학에 참여한 여러 학문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적 가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잡다한 학문적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학제적 공동연구가 안고 있는 결함중의 하나가 독자적인 연구방법론이나 분명한 패러다임(paradigm)의 부재인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해당 학문은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보건학계는 실증적, 경험적 연구가 거의 모든 학회지를 메우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보건학의 이념이나 윤리적, 철학적 측면을 탐색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精緻한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철학이 자칫 무질서하고 공허해질 우려가 있듯이, 분명한 목표가 결여된 과학적 연구는 무의미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처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이익 집단간의 첨예한 갈등 앞에 무력화되는 현실에서 확고한 정책적 이념이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주체가 보건학계임은 분명하며 향후 보건학의 연구방법론에 있어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보건철학이나 보건윤리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의 통계적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러나 분명히 진실로 존재하는 정신적 영역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대 의학이나 보건학의 결정적인 취약점중의 하나가 철학적, 이념적 가치들을 철저하게 간과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학계의 관심도 단순한 흥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보건이념이나 보건철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학이나 윤리학과 같은 사회과학적 배경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껍 다행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본 연구자는 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사상 체계속에 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자리 매김했던 루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루소는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어 무엇보다 건강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자신의 일관된 자연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연적, 예방적 건강관을 확립하고 있었는데, 건강의 본질과 의학의 한계, 그리고 보건교육이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들이 그의 저술에 담겨 있었다. 물론 루소의 건강관과 보건교육론이 시대

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방대한 시간과 지리적 격차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가 음미해보면 도움이 될만한 시사점도 적지 않았다.

루소의 방대한 저서중 그의 건강론이 집중적으로 담겨있는 책은 『Emile』(에밀)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1966년에 파리에서 출간된 가르니에판을 완역한 범우사 책(정봉구 역, 1984)을 주요 텍스트로 하고 루소와 관련된 다른 저작들을 보완해가면서 루소 건강론의 현재적 적용을 검토해 보았다.

II. 루소의 知的 편력과 『Emile』

루소의 건강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소라는 한 인간의 거대한 모습을 먼저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루소는 성장과정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사유방식에 있어 동시대인들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찍부터 고아로 자라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평생을 주변의 오해와 박해 속에 살았으면서도 다양한 방면에 독창적인 업적을 남겼는데 이는 서양 지성사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그의 저작중 당대나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Du Contrat Social』(사회계약론)이지만 이 책 속에 담긴 그의 사상은 일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전의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구축되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루소는 첫 번째 논문인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학문 예술론)에서 학문과 예술의 진보가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기보다 인간의 본래 덕성에 치명적인 해독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했지만 사회를 만들면서 악이 생겼다면 학문과 예술의 빛이 지상에 떠오르면서 미덕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고 실토했다. 그러므로 그는 학문과 예술로 대표되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다.

루소의 이러한 문명비판은 두번째 논문 「Discours sur l'origine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회비판으로 전개된다. 그는 여기서 “한 조각의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것이 내 땅’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사람이 불평등을 창조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인간불평등의 기원을 ‘사유재산’으로 보았다.

이상의 논문에서 자연과 문명, 자연인과 사회인의 대립개념을 설정한 루소는 그 논리적 귀결로서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이상적인 인간, 즉 자연인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졌다. 이를 위해 그는 20년 동안 구상해왔던 그의 교육적 신념을 3년 동안 파리근교에서 두문불출해가며 정리한 책이 『Emile』이다. 루소는 새로운 인간이념의 구축과 인간형성의 이론적 탐구를 위해 장차 그렇게 성장해주었으면 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에밀』을 집필했다.

『에밀』에는 인위적인 사회제도에 의해 타락해가는 인간을 자연 그대로의 인간으로 회복시키려는 그의 교육관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의 첫줄에 서술된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 선한 존재가, 사람의 손에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는 명제는 루소 교육론의 핵심이 된다. 이런 논리에서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키는 사회제도와 정치 제도, 그리고 교육의 책임을 지적하

고, 인간이 지닌 본래의 자유로운 감정을 인간의 마음에 가꾸어주고 사회 속에 살면서도 사회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다고 생각했다.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 대혁명 구호의 출처이자,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지침서가 된 『사회 계약론』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제기된 문제,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던 자유와 평등을 그대로 지닌 채, 보다 나은 사회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다.

이밖에도 소설 『신 엘로이즈』로 낭만주의 문학의 문을 열었고, 만년에 『Confessions』(고백록)을 써서 근대적인 고백 문학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교육학의 명저인 『Emile』에서는 새로운 교육관을 제시하여 아동 복음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책에 심취한 칸트가 그의 규칙적인 산책을 잊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루소는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그래서 『Emile』의 제1부에는 건강과 보건교육에 대한 언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이에게 初乳가 중요하다는 언급부터 어린 아이가 입는 옷과 건강문제, 나아가 의료의 본질과 의사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의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다. 물론 루소만의 편견과 독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투약이 의료의 중심이 되는 현실에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의사를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루소의 자연적 건강관은 오해의 여지도 없지 않으나 오늘날 서양의학의 한계를 발견한 의료인들에게는 하나의 실

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밀』은 루소의 작품 중 최대의 분량으로 원문의 경우 약 600쪽에 이르고 한글 완역본의 경우 1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서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출생부터 3세까지의 유아기, 2부는 3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 3부는 12세부터 15세까지의 소년기, 4부는 15세부터 20세까지의 청년기, 그리고 5부는 20세가 된 에밀과 소피가 결혼할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루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연인인데, 이는 야만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욕심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 능력의 소유자로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롭다. 이러한 자연인을 위한 교육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동기까지의 '감성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이후 청년기까지의 '이성교육'이다. 감성과 이성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선후문제이며, 감성은 이성발달의 기초이고 이성은 감성의 성숙단계에서 필연적인 협력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자연인은 감성과 이성을 그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루소의 발달관계론은 훗날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자인 Jean Piaget 등 현대 심리학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루소는 이 책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줄 아는 인간교육을 강조했다. 인간교육이란 보편성을 갖춘 인간, 루소가 말하는 "인간 모두의 천직은 인간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사람이 되는 교육이 직업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교사란 학생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진리 발견의 방법을 가르치는 '소극적 교육'을 주장한다. 소극적 교육이란 교육하지 않는 교육, 즉 현행 교육의 적극적 교육

과 대립되는 교육이다. 루소의 소극적 교육개념은 오늘날의 대안 교육이나 열린 교육과 맞닿아 있는데 새로운 교육이 시도되는 곳에서는 항상 루소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런 흐름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어린이의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교육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Rousseau, 1761)고 생각했으며 틀에 박힌 인간의 양성이 아닌 인간의 잠재력과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소극적 교육은 '성선설'에 바탕을 둔 것으로, 기독교의 원죄설과 대립된 관점이어서 이 책은 禁書처분을 받는다.

결국 『에밀』의 전편에 흐르는 루소의 교육 목표는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교육이 어떠한 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Ⅲ. 루소의 건강관과 현대적 의의

루소는 『에밀』의 전편에 걸쳐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루소의 건강관은 정밀한 실험이나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섯 아이의 가장으로서의 경험과 주변에서 얻은 다양한 관찰과 깊은 사색을 토대로 정립된 것이기에 현대 의학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비과학적이고 좀 더 입증이 필요한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이 책에 담겨있는 루소의 남다른 안목은 역사이래 누구나 경험했지만 그냥 지나쳤던 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루소의 거대한 사상체계 속에서 건강부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부분적 관찰로 인한 전체성의 상실이라는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루소의 전체

적인 사상과 관련지어 파악했다. 『에밀』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내용들을 유사한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해가며 현대적 시각에서 재음미해 보았다.

1. 의복과 건강

의복과 건강의 문제에 대해 루소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다. 매일 입는 의복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루소는 상당한 관찰을 했다. 우선 그는 태아가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를 답답하게 감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모자나 띠를 매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몸에 꼭 끼는 배내옷은 금물이며 기저귀도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생아는 사지를 뻗었다 움직였다 할 필요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기를 배내옷으로 졸라매고 온갖 종류의 끈과 형겅이 아이의 몸을 구속하기 때문에 아이는 마음대로 자세를 바꿀 수 없으며 숨이 막힌다고 한다. 이처럼 이제 발육을 시작하려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방해받아야 어린이는 불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며 그 결과 어린이는 힘이 빠지고 발육이 늦어진다고 본다. 어린이의 사지를 움직일 수 없도록 속박하는 것은 혈액과 체액의 순환을 방해할 따름이라고 본다(『Emile』 상권 38쪽).

루소가 영아의 의복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성장하는 신체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 손발 등이 의복 속에서 넉넉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옷은 운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발육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너무 딱 맞거나 몸에 꼭 끼어서도 안 된다. 조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프랑스의 의복은 어른들에게 거북하고 건강에도 좋지 못한테 아이에게는 특히 해롭다.”(위의 책, 23쪽)

루소의 이러한 지적은 예리한 면이 있다. 마치 오늘날의 패션 감각을 내다본 것처럼 그는 정확하게 의복과 건강과의 관계를 간파하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유행하고 있는 청바지를 보면 실감이 난다. 척 달라붙고, 꼭 조이는 청바지는 우선 하체의 자유로운 운동을 제약한다. 의복의 신축성이 적어 허벅지를 압박하므로 혈액 순환에 장애를 초래하여 혈압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온 몸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청바지를 입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젊은이들은 체형을 돋보이게 하고 몸매의 곡선을 살리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의상을 버젓이 착용하고 다닌다.

“현대의 부인들이 사용하는 고래뼈 코르셋은 그녀들의 몸매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위장하는 것인데,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그리스 여성들은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 여성이 말벌처럼 둘로 잘려진 모습은 결코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딱하고 상상하기에도 괴로운 것이다.”(『Emile』 하권 208쪽)

역사속에서는 코르셋으로 몸을 조여 심한 경우 호흡장애를 초래한 일이 다반사였다(Black, 1980). 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유행된 고래뼈 코르셋이었다. 이 코르셋은 몸을 한층 더 죄었다. 개미허리를 열망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자주 기절을 했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코르셋 끈을 풀어주어야 다시 정신을 찾을 정도였다.

현재 우리 사회도 어린이들에게 필요이상의 옷을 입힌다. 옷도 부족하여 모자나 머리띠 등 화려한 장신구로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적 감각만 살려 겹겹이 치장해준다. 인체에 많은 옷을 입을수록 대기와 피부의 접촉이 차단됨으로써 피부호흡이 곤란해지고 피부단련도 어려워 짐은 물론이다. 따라서 건강측면에서 청바지보다는 넉넉한 면바지나 치마가 권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한 보건교육에서는 의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의상선택시 단순한 멋차원을 넘어 건강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모유와 유아건강

루소는 『에밀』에서 모유문제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인간의 건강은 첫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루소는 갖 태어난 아이에게 생모의 젖을 주지 않고 유모의 젖을 주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세상 어머니들이 그들의 최초의 의무를 경시하고 자기 어린애를 유모에게 맡겨 기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의무감으로 자신을 돌보는 유모에게서 양육된다고 우려한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어린이에게 젖을 먹여 기르기 위해 흔히 시골의 젖 좋은 여자에게 어린아이를 맡기는 풍습이 있었다.

여자들은 어린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출산 자체를 꺼려한다며 인류의 번영을 위해 주어진 매력을 인류를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여성들을 힘껏 질타한다. 이 풍습은 인구감소의 다른 원인

들과 더불어 다가올 유럽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전망케 한다. 현재 프랑스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루소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생모의 젖이나 유모의 젖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루소는 생모의 혈액에 유전병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한 유모의 젖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루소는 이 문제를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하지 않고 정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있어 어머니의 보살핌은 모유 이외에 다른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젖은 다른 여성이나 동물이 줄 수도 있지만 모성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정은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Emile』 상권 42쪽).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좋지 않은 어머니가 어떻게 좋은 유모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루소는 세상 어머니들에게 다른 일에 우선하여 어머니의 의무부터 시작하라고 역설한다. 세상의 모든 타락은 이 최초의 타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기서 모든 정신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본다. 자연의 감정이 만인의 가슴에서 사라진다고 통탄한다(위의 책 43쪽). 어린애를 갖지 않은 어머니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세상 어머니들이 자기 어린애를 직접 자기 젖으로 길러준다면 사회풍습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 자연의 감정이 만인의 가슴속에 용솨음칠 것이라고 한다. 귀찮은 일로만 생각했던 아이 돌보기가 즐거운 일이 되고 또 그 일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부부의 사랑을 한층 공고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 책이 출간되자 당시 사람들이 아이에게 우유

대신 모유를 먹이는 습관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한다.

이처럼 단 한가지 악습이 교정됨으로써 그 결과 사회에 전반적인 개혁의 기풍이 일어나고 자연은 즉시 모든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여성들이 일단 어머니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마침내 남자들도 아버지의 자리로, 또 남편의 자리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것이다(위의 책 44쪽).

지금은 루소의 시대와는 상황이 달라져 생모의 젖과 유모의 젖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유나 우유냐의 문제로 변모되었다. 1970년대 만해도 미국에서는 모유가 우유보다 더 좋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그 이유는 모유보다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모유 이상으로 단백질이 많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모유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아이를 둔 직장 여성들이 근무중 젖을 받아 냉장고에 보관한 후 퇴근해서 아이에게 수유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자들에 의하면 모유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로 만들어진 자연이 내려준 완전 영양식이다. 소에게는 우유가 적합하듯이 인간에게는 모유가 가장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 후 24시간 후에 나오는 초유는 충분한 항체가 포함되어 있어 그 면역력이 높ی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품은 아이에게는 편안한 휴식처이며 젖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아이에게 함께 전달되어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정신적 유대감도 깊어질 것은 당연하다. 과연 우유가 이러한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문제는 이제 어머니

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즘은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유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어떤 면에서 루소가 주장했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현대판인 셈이다.

3. 과보호와 신체건강

루소는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의 무관심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보살핌 역시 자연의 길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과잉보호를 경계한다.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결국 자식들의 일생을 망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핏덩이인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에 거꾸로 담갔다는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들고 있다. 이 사례와는 달리 프랑스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지나친 보호 때문에 연약한 체질을 타고난다고 우려했다. 아이들이 지닌 본래의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자주 씻겨주면서 아이들이 점차 튼튼해짐에 따라 물의 온도를 낮추고 마침내는 여름과 겨울을 가릴 것 없이 냉수나 얼음물로 씻어줄 것을 강조한다(위의 책 73쪽). 이런 목욕습관은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장의 청결이나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육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더위나 추위의 변화에서 오는 고통과 위험을 줄이는 예방요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소는 어린이의 신체건강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 지성의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그 지력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몽테뉴의 사

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루소는 어린이의 영혼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야 하며 노동에 익숙해지면 어린이는 고통에도 익숙해진다고 보았다. 어린이가 탈골, 복통,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린이의 신체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루소는 허약한 불구자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분이 교사로부터 병간호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바쳐야 할 귀중한 시간이 한 생명의 간호에 낭비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나는 병들고 허약한 어린이라면 그가 80세를 산다고 해도 그를 말지 않을 것이다”(위의 책 60쪽)

오직 신체의 보호에만 급급하다 자신이나 남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 그리고 신체가 정신의 교육에 방해가 되는 제자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루소는 이처럼 허약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정성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은 플라톤의 적자생존적 건강관을 연상시킨다. 플라톤은 『Politeia』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Platon, B.C. 375)

플라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돌보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도록 내버려두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가족이나 사회에 아무리 큰 부담이 되더라도 모든 수단

을 동원하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오늘날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오늘날의 인간존중의식과 고도의 윤리의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온 세상이 노인과 병약자들로 가득찰 때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의 생각과 루소의 사상이 현명했다고 생각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생존자체에 연연해하는 허약자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의 경쟁력은 감소하게 되며 과연 미래에도 지금처럼 허약자를 위한 인간의 공동체의식이 살아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Dubos, 1959).

루소는 생활 속에서의 무질제가 모든 정욕을 부추킨다고 본다. 모든 관능적인 욕구는 나약한 신체 속에 깃들며 나약한 육체가 정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육체는 그 정욕에 더욱 예민해진다고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인간이 쾌락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행복은 그만큼 멀어지며, “육체가 지나치게 편안하면 정신이 타락한다”며 강인한 신체와 절제된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에밀』 상권 126쪽). 루소의 이러한 언급은 건강유지에 있어 개인의 건강행태(health behavior)나 생활습관(life style)의 중요성을 잘 지적한 것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건강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 보건학계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듀보(Dubos)도 질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생활방식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이나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현대를 인류역사상 최고의 건강상태에 있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지나친 환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Dubos, 1959).

미리 내다본 것으로 보인다.

4. 의 료

루소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에 대해 그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의술이야말로 병 이상으로 인간에게 유해하다고 단언한다(『Emile』 상권 61쪽). 의사들은 질병보다 훨씬 심각한 환자의 무기력성이나 의술에 대한 맹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설사 의사들이 신체는 치료할 수 있어도 질병에 저항하는 환자의 용기를 말살시킨다고 본다. 루소는 진리의 효용 뒤에는 수많은 착오의 해악이 있는 것처럼, 의사의 손에 의해 한 명의 환자가 완치되는 기쁨 뒤엔 의사의 손에 의해 죽어 가는 백명의 환자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루소가 의술 전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람을 가르치는 학문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 모두가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학문과 사람을 살해하는 의술이 문제라는 것이다. 루소는 의술이 약간의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유해하다고 생각한다(위의 책 62쪽). 자연의 뜻에 역행해가면서 병을 고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손에 죽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이 잘못된 의사에게 있지 의술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공격하자 루소는 이 점을 수긍하면서도, 의술에 의해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 보다 그 의사의 과오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을 훨씬 두려워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는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의료분쟁의 심각성을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라. 인내심을 가져라. 의사를 멀리해라.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대의 고통은 한번으로 족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매일 여러분의 혼란한 정신에 죽음을 가져와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대신에 그들의 기만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대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위의 책 115쪽).

어느 시대고 죽어 가던 사람이 의술덕분에 생존을 유지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술때문에 목숨을 잃는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루소가 생존했던 18세기에는 천연두나 발진티푸스, 결핵 등의 전염병이 성행한 반면, 의리기술이나 의약품 등은 턱없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치료의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한층 심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루소는 다음과 같이 의료의 본질에 회의를 나타낸다.

“나는 항상 의술이 인간에게 과연 얼마나 참다운 공헌을 했는지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위의 책 115쪽)

이에 대해 듀보도 유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듀보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염병은 항생제에 의한 치료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은 어른들의 건강상태의 호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아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19세기 인도주의자들이나 사회개혁운동가들에 의한 공중보건운동의 결과로 환경위생과 영양상태의 개선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Dubos, 1959).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효과가 불확실한 의술

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이 부분은 인간의 生死觀과 연결된다. 만약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불행할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처럼 생명에 집착하는 존재도 없다. 더 이상 자기 보존이 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조용하게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동물세계의 자연스런 모습이다. 거기에는 고민이나 주저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시종족들이나 짐승들은 죽음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거의 슬퍼하지도 않는다(『Emile』 상권 116쪽)”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현세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거부하며 발버둥친다.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가망없는 생명을 한 치라도 연장해보려고 최첨단 의료기술에 의존하는 문명인의 모습은 삶과 죽음에는 경계가 없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 역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음은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장수촌 주민들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오늘날의 보건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자연치유력

루소는 한때 의학연구에 몰두했던 존 로크(John Locke)가 어린이들에게 예방차원이나 또는 사소한 질병에 대해 함부로 약을 먹이지 말도록 강조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자신을 위해서나 에밀을 위해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의사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생명이 확실한 위험상태에 있지 않는 한 의사의 도움을 거부하겠다는 루소의 생각은 질병의 자연치유능력(natural healing power)에 근거하고 있다.

“어린이가 비록 병에서 회복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해도 그는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이 방법은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대신할 것이며 치료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이 자연의 치료법이다. 동물은 병에 걸리면 그저 묵묵히 괴로워하며 가만히 있다. 그러나 병들어 초췌한 동물은 병든 인간만큼 많이 눈에 띠지 않는다. 초조와 근심, 걱정, 불안, 특히 약품 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가? 그냥 내버려두었으면 저절로 치유되었을 환자들이, 그저 시간만 경과되면 회복될 수 있었던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던가?”(위의 책 64쪽).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그러한 생활방식이야말로 루소가 에밀에게 가르치고 싶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물론 루소가 말하고 있는 자연치유력은 루소의 독창적인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미 동서양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치료중심의 의학에 가려져 왔던 것이다.

서양의 醫聖인 Hippocrates는 「염병에 관하여」에서 인체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physis)이 있고, 의사(Physician)는 이 피지스를 복돋워 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의사는 자연치유력을 존중하고 ‘자연’의 치유과정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의사의 책무는 ‘자연’과 협력하여 ‘자연’을 돕는 것이며,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양의학의 최고 고전인 『黃帝內經』의 「素問」편에는 「病을 本으로 하며, 工을 標로 한

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질병치료의 주역은 환자 자신이며 의사는 보조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환자 자신에게 자연치유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마천이 쓴 『史記』의 「扁鵲」傳에는 “나는 죽은 사람을 회생시킬 수는 없다.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 내가 그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환자란 바로 자연치유력이 남아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도 질병에 대한 내적인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주목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연치유력은 동서양을 넘어 확고하게 자리잡은 생명체의 내적 본질이며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병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치료를 밖에서 찾아왔고 현대 의학도 주된 관심을 외부적 요인에 두어왔다. 더욱이 현대 의학은 질병의 발생원인을 찾아 근본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행과정을 억제하거나 통증을 약화시키는 대중 요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대 의학의 증대한 철학적 결함중의 하나는 자연치유력을 실종시켜왔다는 점이라고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앤드류 와일 박사는 지적하고 있다(Weil, 1997).

현대인은 치료과정에서 오진이나 과잉진료, 부작용 등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의학기술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의학적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만이 건강증진을 가능케 한다고 오도하여 질병과 싸우는 인간내부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현대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철저하게 의료화되어 있고 사회에 의료의 개입이 만연되어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오스트리아의 문명

비평가인 Illich는 의료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Illich, 1987).

6. 위생학

의료의 역할에 대해 제한적인 유용성만을 인정했던 루소는 다음과 같이 위생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의학중에서 단 한가지 유익한 부문은 위생학이다. 그러나 위생학(Hygiene)이란 학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교육이다”(『Emile』 상권 64쪽).

루소가 말하는 위생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에밀』에 흐르는 루소의 일관된 건강관념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 예방의학이나 보건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루소가 위생학만을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루소가 경멸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치료의학이지 예방의학은 아니었다. 루소는 질병이 발생한 후의 교정보다 평소에 자연치유능력의 극대화를 통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없이 10년을 사는 사람은 의사의 희생물로 30년을 사는 사람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더 오래 사는 셈이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오늘날 의료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한다. 질병치료보다 사전예방이 먼저라는 것은 진부한 상식이 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진료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전도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듀보는 “사람들은 질병을 예

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생활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기보다는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질병 치료자에게 쉽게 의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Dubos, 1959).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전한 마음가짐과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구태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기보다 쉽고 편안하게 살려한다. 예를 들면 왕성한 식욕을 억제하기 보다 마음껏 식욕을 충족시킨 후 소화제나 위장약에 의존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료도 히게이아가 상징하는 예방적 치유보다 아스클레피우스가 상징하는 사후적 치료쪽으로 치우쳐 있다. 갈수록 치료의 학은 첨단화하는데 비해 예방의학이나 보건학은 그 당위성만이 강조될 뿐 그에 합당한 실천적 행위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고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생학을 학문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도덕교육으로 보았던 루소의 의도를 정확하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보건학이 순수학문적 성격보다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실천적 학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타고난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조화로운 생활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적응능력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듯하다.

IV. 결 론

이상이 루소 건강론의 주요 내용이다. 루소가

살았던 18세기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루소의 건강관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루소의 주장중 일부는 이미 실현된 것도 있고, 일부는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루소는 전문적인 의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체의 생리 기능이나 해부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체를 넘어서는 의료의 본질과 질병의 자연회복, 신체와 정신과의 관계 등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철학자가 아니고서는 놓치기 쉬운 건강의 근본원리를 잘 지적하고 있다. 루소의 건강론중 미래의 인류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예방적 건강론과 자연적 건강론, 그리고 주체적 건강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예방적 건강론은 출생순간부터 무리한 압박이나 구속을 피하고 신체가 발육하는 동안 신체를 자연스럽게 단련시켜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의학중 오직 위생학만이 인간생활에 유용하다는 부분은 루소의 예방적 건강론의 절정을 보여준다. 예방적 의미를 갖는 위생학을 도덕교육이라고 본 것 역시 인간이성에 입각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건강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정신이 건전한 사람은 탐욕이나 방탕과 같은 무절제한 생활을 멀리할 수 있으며, 절도 있고 합리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게 되어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치료의학에 대해서는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치료가 성공적으로 행해져도 질병이전의 상태로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의료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루소는 내버려두면 저

절로 치유될 환자들이 인위적인 의료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거나 치료의 후유증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관점은 자연적 건강론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산천초목을 의미하는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이나 개입이 없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작용이나 자연스러운 활동을 말한다. 사실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기를 원한다. 균형이 깨진 신체는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다.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대 의학은 왕성한 질병 저항능력인 자연치유력의 잠재력보다는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서양의학의 힘으로 질병을 완전하게 퇴치한 것은 천연두와 홍역 등 소수에 불과하다. 현대의학이 병을 하나씩 퇴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병명이지만 병 자체는 아니다. 또 항생제를 사용하여 특정한 장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그 장기는 회복될 지 모르지만 건강한 인접 장기에 손상을 입혀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 혼란 감기조차 아직 인간은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 신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生來的으로 치유체계(healing system)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치유는 드문 현상이 아니라 상처의 회복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흔한 사건이다. 의사(physician)라는 단어의 기원이 자연(physis)인 것만 보아도 내 몸이 곧 의사(physician)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자연회복 능력을 진정된 의사로 간주했던 루소의 자연건강론은 미래의 의학에서는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의술이나 의료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해결해 나가도록 한 부분은 건강관리의 자기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말은 과거처럼 자기 건강관리의 모든 것을 의료인에게 맡긴 채, 정작 자신은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 있던 입장을 탈피해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주체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우리 내부의 면역체계와 자연치유력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다. 의사는 환자의 자연치유능력을 회복시켜 주고 환자에게 정확한 의학지식을 제공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러한 루소의 건강관 및 건강철학은 향후 우리의 보건교육 과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몸속의 의사인 자연치유력을 환기시켜서 자기건강에 대한 확고한 주인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강을 관리해가는 사람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2천 5백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향후에도 인류의 건강철학으로 변함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영한 외 : 서양의 지적운동I, 지식산업사, 1994, 373-404
2. 사마천 : 史記, B.C. 97; 정범진 외 역, 사기, 까치, 1997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醫道, 박문각, 1992, 112-123
4. 성영곤 : 히포크라테스 전통: 최근 2세기의 연

- 구사, 의사학, 1997, 6(1), 105-120
5. 안인희 외 : 루소의 자연교육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43-77
 6. 안인희 : 장자크 루소, 철학과 현실, 1995, 25, 135-139
 7. 연세대학교 교육철학 연구회 :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교육과학사, 1998, 189-239
 8. 이부영 : 의학개론 I, 서울대출판부, 1995, 80-85
 9. 이현수 : 건강과학개론, 중앙대 출판부, 1997, 48-49
 10. 차하순 : 서양사 총론, 탐구당, 1992, 458-468
 11. 용백건 : 黃帝內經概論, 1962, 백정의 외 역, 논장, 1990, 98-102
 12. 澤瀉久敬 : 醫學概論 I·II, 東京: 誠信書房, 1986; 신정식 역, 의학의 철학I·II, 범양사 출판부, 1991
 13. 黃帝內經 素問 : 배병철 역, 정보사, 1994
 14. Ackerknecht : A Short History of Medicin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82
 15. Alvert et al : An Illustrated History of Medicine, New York: Abradale Press, 1988; 황상의 외 역, 세계의학의 역사, 한올아카데미, 1994, 460-489
 16. Black & Garland : A History of Fashion, 1980;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I, 자작아카데미, 1997, 253
 17. Dubos : Mirage of Health, 1959; 허정 역, 명경, 1994, 11-181
 18. Hippocrates : Corpus Hippocraticum. 윤임중 역, 의학이야기, 서해문집, 1998, 11-20
 19. Illich: Limits to Medicine, Medical Memesis : The Expropriation of Health, 1979; 박홍규 역, 「병원이 병을 만든다」, 형성사, 1987, 59-136
 22. McKeown : The Origins of Human Disease, 1988; 서일 외 역, 질병의 기원, 동문선, 1996, 48-59
 23. Montaigne : Les Essais. 1580; 민희식 역, 수상록. 1993, 192-193
 24. Platon : Politeia, B.C. 375; 박종현 역, 국가, 서광사, 1997, 238
 25. Rousseau : Discours sur l'origine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 1755; 최현 역, 불평등기원론, 집문당, 1993
 26. Rousseau : Emile, 1761; 정봉구 역, 에밀, 범우사, 1993
 27. Rousseau : Du Contrat Social, 1761; 최현 역, 사회계약론, 집문당, 1993
 28. Rousseau : Confessions, 1770; 박순만 역, 참회록, 집문당, 1994
 29. Sarno : Healing Back Pain: The Mind- Body Connection, New York: Warner Books, 1991, 48-56
 30. Voet : Biochemistr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0, 316-328
 31. Weil : Spontaneous Healing, 1995; 김옥분 역, 정신세계사, 1997, 66-67
 32. Weil : Health and Healing, Boston: Houghton, 1988, 68-76

〈Abstract〉

A Study on Rousseau's Health Theory and Health education in 『Emile』

Duck-Jin Ban

Department of Humanities, Woosuk University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ousseau's health theory and health education in 『Emile』. Though Rousseau was not so much a doctor as a philosopher, he was good at health care and health education. After he had thought over healthy children for 20 years, he had written 『Emile』 for 3 years. His health theory was included in the book.

He was aware of the importance of mother's milk, clothes, and physical health. Especially, he told mothers to rear a child at the breast. He understood thoroughly the demerits of medicines, and made no account of doctors and medicines. But on the other hand, He emphasized natural healing power in human body. He thought that one oneself was a physician. He thought highly of inner healing.

He thought that only hygiene of medicine was useful to mankind. He prescribed that hygiene was a kind of ethics education. Therefore, his hygiene wa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and moral evaluation. Because many years have passed, today we can not accept all his assertions. But we need to stress preventive medicines, spontaneous healing, and self-care in health education.